

보도시점 2026. 10. 7.(수) 11:00
< 10.7.(수) 석간 >

배포 2026. 10. 6.(화)

2026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229.0억 달러(+10.8%),

도착 148.7억 달러(+30.6%)

- 신고 역대 3위 및 도착 역대 1위, 외국인투자 증가 모멘텀 지속
- 반도체 소·부·장, 데이터센터 등 유망 분야 투자 지속 유입

【총괄】 2026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29.0억 달러, 도착은 30.6% 증가한 148.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중동 상황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투자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유망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등 산업 공급망과 AI 생태계를 기반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 유입되고 있으며, 해상풍력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신고】 2026년 3분기 투자 신고는 229.0억 달러(+10.8%)를 기록하였다. 이는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3위 실적으로, 외국인투자 증가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별】 공장, 사업장의 신·증설 등을 위한 ▲그린필드형 투자 신고는 185.2억 달러(+4.0%)를 기록하였다. 올해 1분기에 감소세(△19.8%)로 출발했으나 3분기에 플러스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편, 기업 지분인수, 합병 등을 위한 ▲M&A형 투자 신고의 경우 43.8억 달러(+53.1%)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 ▲제조업 투자 신고는 57.2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34.5%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화공(17.7억 달러, △28.1%), 전기·전자(17.5억 달러, △38.5%) 등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신고 실적이 감소한 반면에, 기계장비·의료정밀(9.4억 달러, +145.1%), 비금속광물제품(3.9억 달러, +13.0%) 분야에서는 증가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서비스업 투자 신고의 경우 142.1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7.8% 증가하였다. 금융·보험(53.6억 달러, +29.8%), 부동산(19.1억 달러, +72.6%) 등 대부분 분야에서 투자 신고 실적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정보통신(24.3억 달러, +35.8%) 분야에서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청정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포함한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업 투자 신고 또한 29.5억 달러(+279.5%)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별] ▲미국 투자 신고 실적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등 유망 투자가 다수 유입되며 전년 대비 35.1% 증가한 66.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EU 투자 신고는 24.1억 달러(△3.9%)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일본(18.8억 달러, △47.9%), ▲중국(17.4억 달러, △39.7%)의 경우 지난해 대비 투자 신고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도착] 2026년 3분기 투자 도착은 148.7억 달러(+30.6%)를 기록하면서,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1위 실적을 달성하였다.

[유형별] ▲그린필드형 투자 도착은 78.9억 달러(△4.9%)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에, ▲M&A형 투자 도착은 69.8억 달러(+126.0%)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 ▲제조업 투자 도착은 62.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0.6% 증가하였다. 화공(47.6억 달러, +256.6%), 비금속광물제품(3.9억 달러, +242.5%) 분야에서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의약 관련 투자가 유입되면서 의약(2.8억 달러, +129.0%) 분야 실적도 개선되었다.

▲서비스업 투자 도착의 경우 83.7억 달러(+ 5.6%)로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금융·보험(40.4억 달러, + 6.9%), 부동산(8.7억 달러, + 46.6%) 분야에서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특히 정보통신(17.6억 달러, + 62.7%)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국가별】 ▲미국 투자 도착은 30.0억 달러(+ 0.7%)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EU(48.4억 달러, + 93.7%), ▲일본(7.8억 달러, + 63.0%) 투자 도착 실적은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 투자 도착의 경우 2.6억 달러(△41.5%)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계획】 산업통상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추진,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등으로 국내 투자 기회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투자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IR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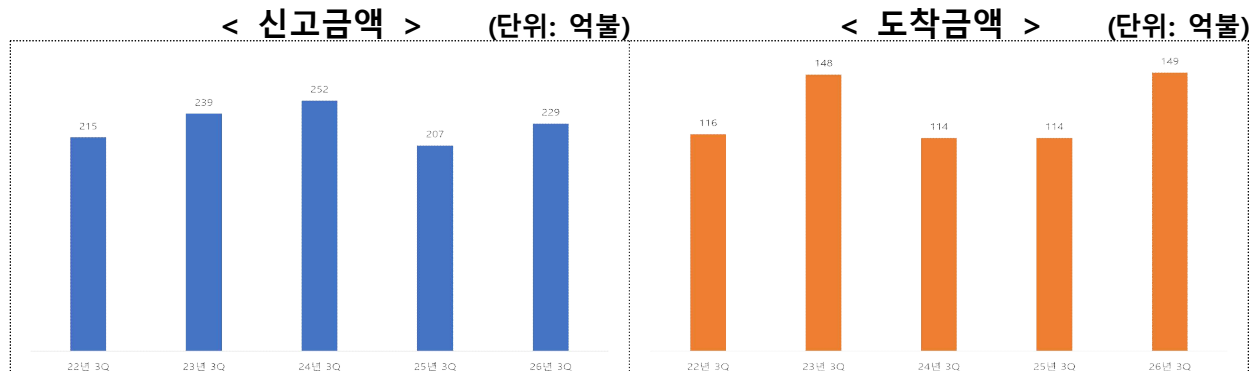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데이터센터 등 유망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모멘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최대 투자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KS)을 비롯한 국내외 IR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외투유치 카라반(지역순회 IR)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여 신규 투자뿐 아니라 실제 투자 도착 및 증액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과 (사)외국인 직접투자연구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을 따름
- 본 자료는 2026년 9월 30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산업통상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 2026년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7년 1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김정예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성제민 (044-203-4082)
			사무관	홍순택 (044-203-4085)

I. 총 괄

① (실적) 신고 229.0억불(전년대비 +10.8%), 도착 148.7억불(+30.6%)



② (신고) 중동정세 등 FDI 하방 압력에도 전년비 10.8% 증가, 역대 3위

- (유형) 그린필드 185.2억불(+4.0%), M&A 43.8억불(+53.1%)
- (업종) 제조업 57.2억불(△34.5%), 서비스업 142.1억불(+27.8%)
기타 29.7억불(+268.0%)
- (국가) 美 66.9억불(+35.1%), EU 24.1억불(△3.9%),
日 18.8억불(△47.9%), 中 17.4억불(△39.7%), 기타 101.8억불(+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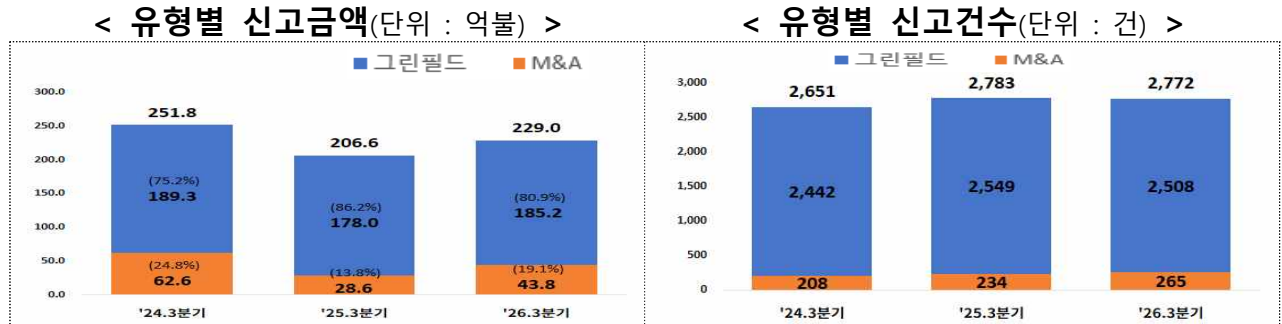
③ (도착) 旣 신고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유입되며, 역대 1위 기록

- (유형) 그린필드 78.9억불(△4.9%), M&A 69.8억불(+126.0%)
- (업종) 제조업 62.5억불(+110.6%), 서비스업 83.7억불(+5.6%)
기타 2.4억불(△50.2%)
- (국가) 美 30.0억불(+0.7%), EU 48.4억불(+93.7%),
日 7.8억불(+63.0%), 中 2.6억불(△41.5%), 기타 59.9억불(+20.2%)

II. 투자 신고 세부 동향

1. 유형별

- (금액) 그린필드형(185.2억불, +4.0%, 비중 80.9%) 증가
M&A형(43.8억불, +53.1%, 비중 19.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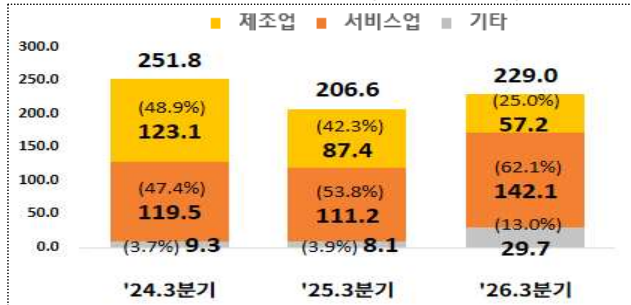


- (그린필드형) 185.2억불(전년比 +4.0%)
 - 제조업(51.7억불, △37.4%) 감소, 서비스업(104.3억불, +18.9%) 증가
 - (M&A형) 43.8억불(전년比 +53.1%)
 - 제조업(5.5억불, +12.9%), 서비스업(37.8억불, +61.3%) 모두 증가
- (건수) 그린필드(2,508건, △1.6%) 감소, M&A(265건, +13.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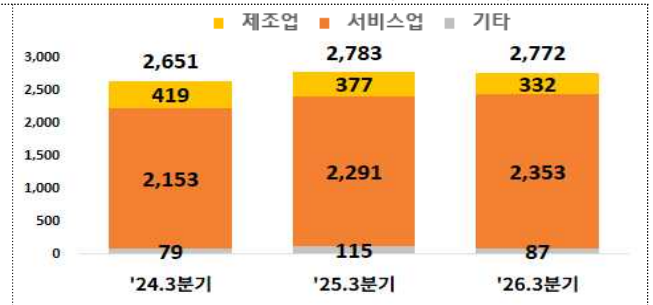
2. 업종별

- (금액) 제조업(57.2억불, △34.5%, 비중 25.0%) 감소, 서비스업(142.1억불, +27.8%, 비중 62.1%)·기타업종(29.7억불, +268.0%, 비중 13.0%) 증가
-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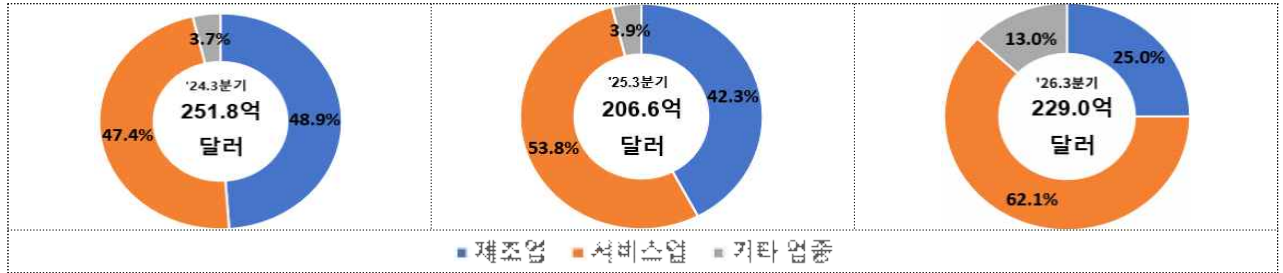
< 업종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업종별 신고건수(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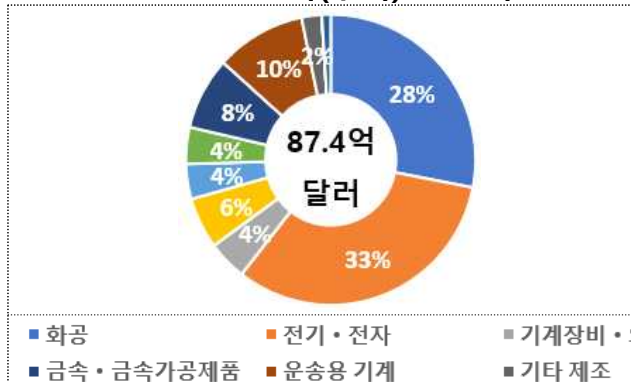


< 업종별 FDI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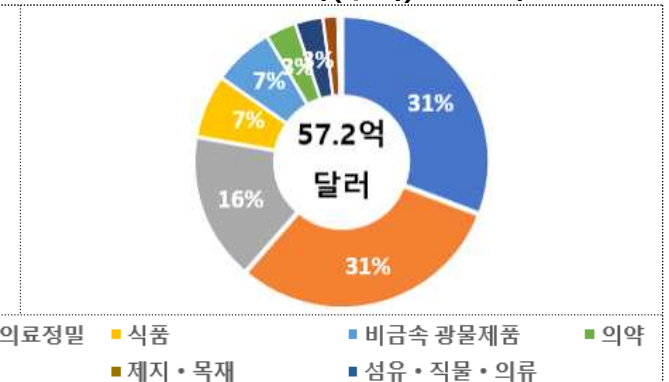


○ (제조업) 57.2억불(전년比 △34.5%, 비중 25.0%)

< '25년 3분기(누적) 신고액 >



< '26년 3분기(누적) 신고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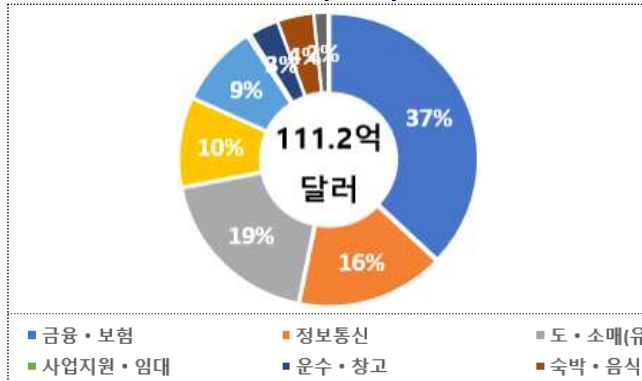


- (증가업종) 기계장비·의료정밀(9.40억불, +145.1%),
비금속 광물 (3.86억불, +13.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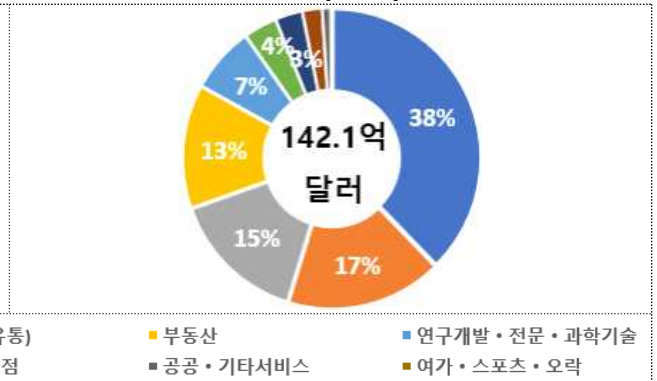
- (감소업종) 화공(17.65억불, △28.1%), 전기·전자(17.46억불, △38.5%),
식품(4.02억불, △19.3%) 등

○ (서비스업) 142.1억불(전년比 +27.8%, 비중 62.1%)

< '25년 3분기(누적) 신고액 >



< '26년 3분기(누적) 신고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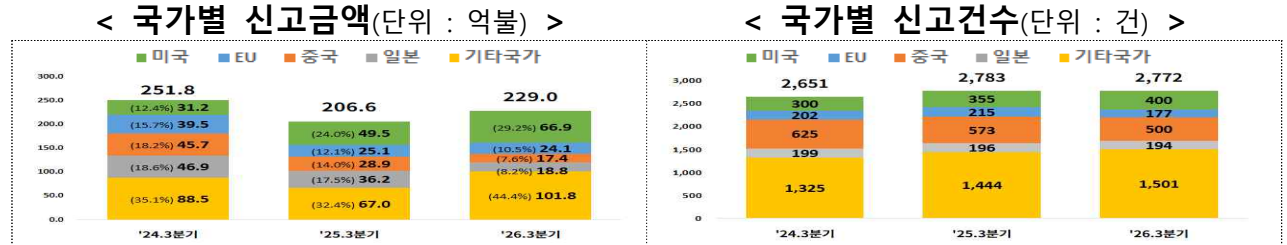
- (증가업종) 금융·보험(53.55억불, +29.8%), 정보통신(24.26억불, +35.8%), 도·소매(유통)(21.07억불, +1.1%) 등
- (감소업종) 숙박·음식(3.06억불, △30.4%), 공공기타서비스(1.32억불, △21.8%)

□ (건수) 제조업(332건, △11.9%)·기타업종(87건, △24.3%) 감소, 서비스업(2,353건, +2.7%) 증가

3. 국가별

(* EU : 영국 제외 27개국)

- (금액) 미국(66.9억불, +35.1%, 비중 29.2%)·기타국가(101.8억불, +51.8%, 비중 44.4%) 증가, EU(24.1억불, △3.9%, 비중 10.5%)·중국(17.4억불, △39.7%, 비중 7.6%)·일본(18.8억불, △47.9%, 비중 8.2%) 감소



- (미국) 66.9억불(전년比 +35.1%, 비중 29.2%)
 - (업종별) 제조업(14.0억불, △31.9%) 감소, 서비스업(38.4억불, +34.5%)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63.4억불, +34.2%), M&A(3.4억불, +53.9%) 모두 증가
- (EU) 24.1억불(전년比 △3.9%, 비중 10.5%)
 - (업종별) 제조업(10.5억불, +14.8%) 증가, 서비스업(5.3억불, △60.7%)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22.4억불, +25.8%) 증가, M&A(1.7억불, △76.8%) 감소
- (중국) 17.4억불(전년比 △39.7%, 비중 7.6%)
 - (업종별) 제조업(5.8억불, △64.0%), 서비스업(6.9억불, △40.7%) 모두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15.4억불, △46.4%) 감소, M&A(2.0억불, +2,754.6%) 증가
- (일본) 18.8억불(전년比 △47.9%, 비중 8.2%)
 - (업종별) 제조업(4.4억불, △86.3%) 감소, 서비스업(14.4억불, +282.8%)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15.1억불, △57.9%) 감소, M&A(3.8억불, +817.4%) 증가
- (기타국가) 101.8억불(전년比 +51.8%, 비중 44.4%)
 - (업종별) 제조업(22.6억불, +142.9%), 서비스업(77.1억불, +43.7%) 모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68.8억불, +42.1%), M&A(33.0억불, +76.9%) 모두 증가
- (건수) 미국(400건, +12.7%)·기타국가(1,501건, +3.9%) 증가,
EU(177건, △17.7%)·중국(500건, △12.7%)·일본(194건, △1.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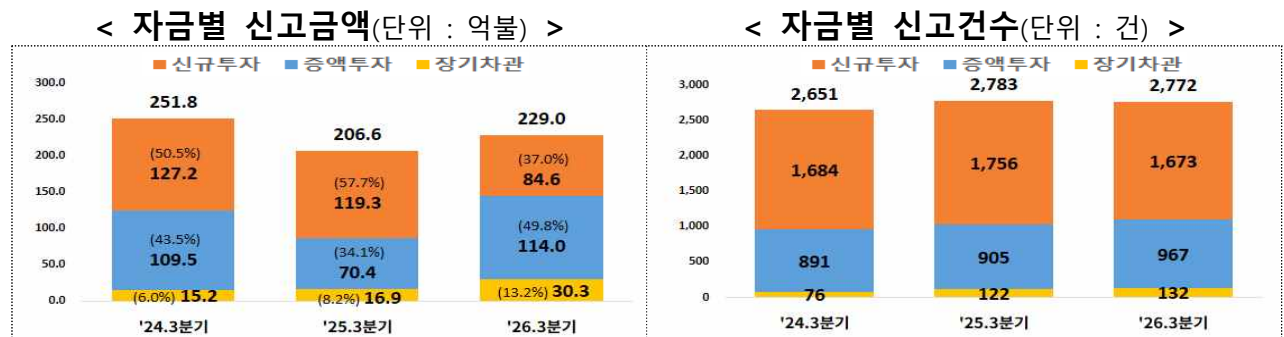
4. 자금별

□ (금액) 증액투자(114.0억불, +62.0%, 비중 49.8%)·장기차관(30.3억불, +79.0%, 비중 13.2%) 증가, 신규투자(84.6억불, △29.1%, 비중 37.0%) 감소

* 신규투자 : 외국인이 최초로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신규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 참여)하거나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

* 증액투자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국내기업이 ①동일 외국투자가 또는 ②새로운 외국인으로부터 추가로 투자 취득, ③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 장기차관 :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신규투자) 84.6억불(전년比 △29.1%)

- 제조업(24.7억불, △58.2%), 서비스업(54.3억불, △6.6%) 모두 감소

○ (증액투자) 114.0억불(전년比 +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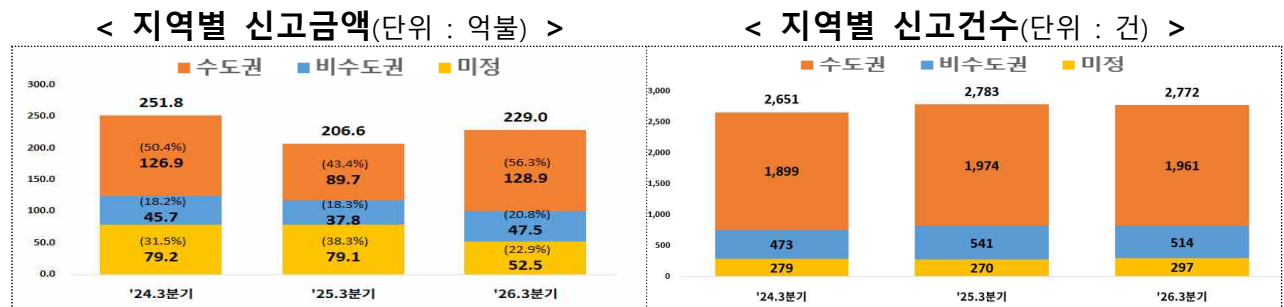
- 제조업(27.1억불, +12.0%), 서비스업(63.3억불, +47.6%) 모두 증가

□ (건수) 신규투자(1,673건, △4.7%) 감소, 증액투자(967건, +6.9%) 증가

5. 지역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非수도권 : 이외 13개 시·도
미정(52.5억불)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금액) 수도권(128.9억불, +43.7%, 비중 56.3%)·非수도권(47.5억불, +25.8%, 비중 20.8%) 증가, 투자지역 미정(52.5억불, △33.7%, 비중 22.9%) 감소



○ (수도권) 128.9억불(전년比 +43.7%)

- 제조업(21.4억불, +86.3%), 서비스업(103.5억불, +36.7%) 모두 증가

* 서울(104.2억불, +53.9%), 인천(2.0억불 △66.7%), 경기(22.7억불, +42.2%)

○ (非수도권) 47.5억불(전년比 +25.8%)

- 제조업(16.1억불, △33.6%) 감소, 서비스업(10.5억불, +14.8%) 증가

* 증가 시·도 : 전남광주(17.43억불, +48.2%), 충남(6.20억불, +126.6%), 울산(5.77억불, +336.7%), 전북(3.45억불, +1,432.2%), 강원(1.23억불, +106.0%), 제주(0.21억불, +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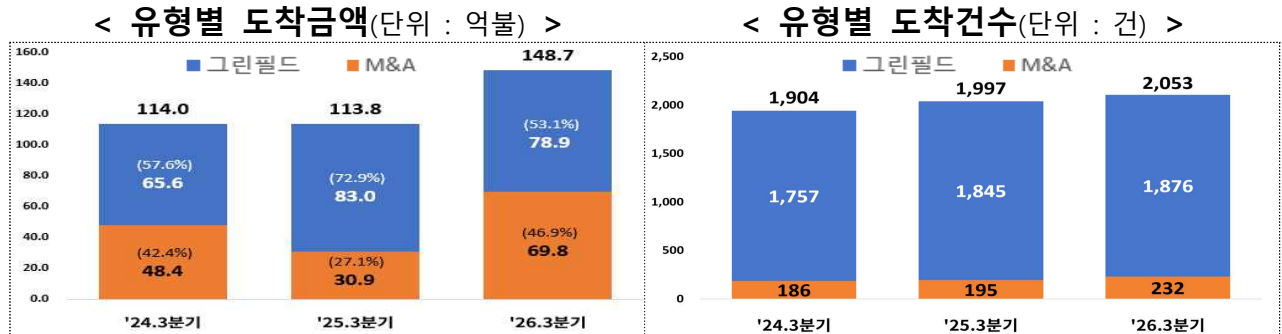
* 감소 시·도 : 충북(4.76억불, △2.9%), 부산(4.04억불, △41.7%), 경북(1.59억불, △53.0%), 대전(1.19억불, △22.0%), 세종(1.01억불, △19.0%), 경남(0.56억불, △80.5%), 대구(0.10억불, △35.5%),

□ (건수) 수도권(1,961건, △0.7%), 非수도권(514건, △5.0%) 모두 감소

Ⅲ. 투자 도착 세부 동향

1. 유형별

- (금액) 그린필드형(78.9억불, △4.9%, 비중 53.1%) 감소,
M&A형(69.8억불, +126.0%, 비중 46.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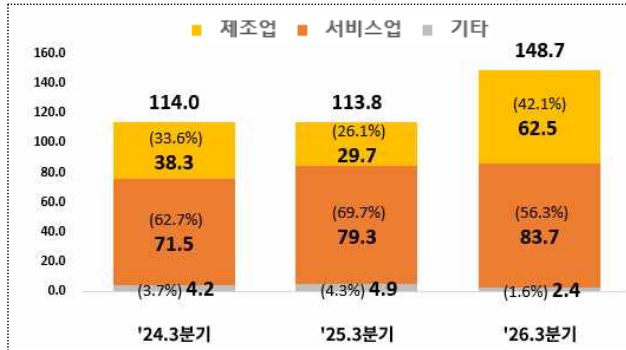


- (그린필드형) 78.9억불(전년비 △4.9%)
 - 제조업(26.6억불, +5.4%) 증가, 서비스업(50.3억불, △5.2%) 감소
 - (M&A형) 69.8억불(전년비 +126.0%)
 - 제조업(35.9억불, +710.9%), 서비스업(33.4억불, +27.4%) 모두 증가
- (건수) 그린필드(1,876건, +1.7%) 증가, M&A(232건, +19.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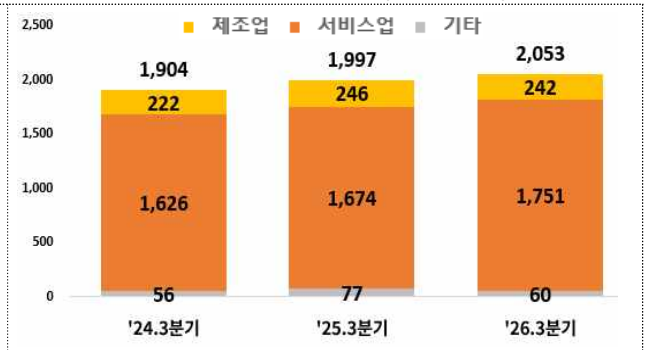
2. 업종별

- (금액) 제조업(62.5억불, +110.6%, 비중 42.1%)·서비스업(83.7억불, +5.6%, 비중 56.3%) 증가, 기타업종(2.4억불, △50.2%, 비중 1.6%) 감소
-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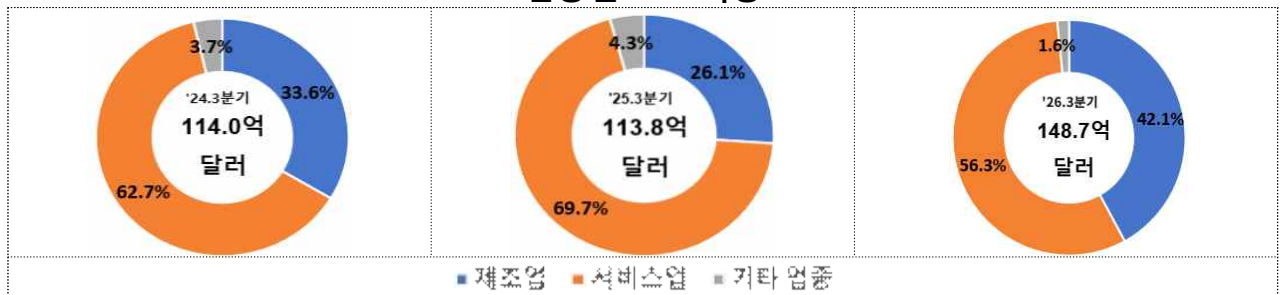
< 업종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업종별 도착건수(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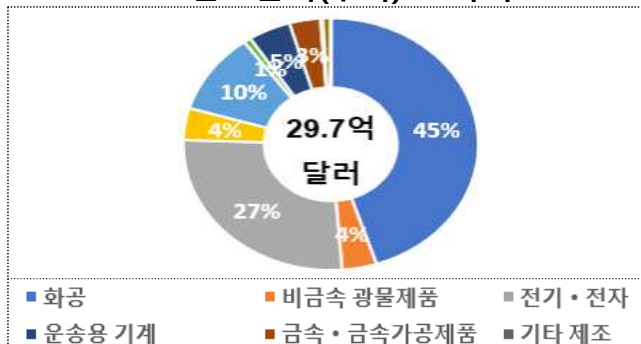


< 업종별 FDI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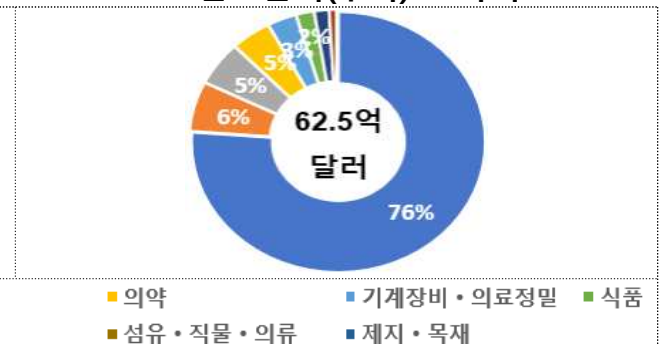


○ (제조업) 62.5억불(전년比 +110.6%, 비중 42.1%)

< '25년 3분기(누적) 도착액 >



< '26년 3분기(누적) 도착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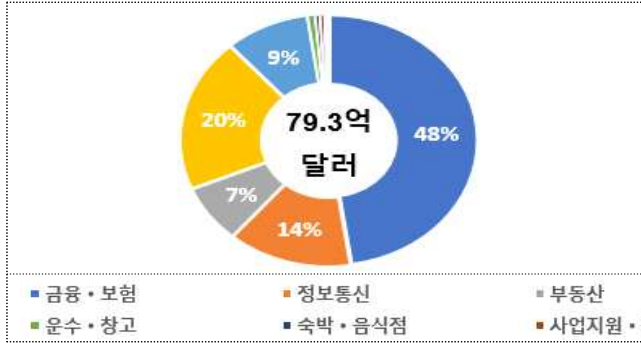


- (증가업종) 화공(47.61억불, +256.6%), 비금속광물(3.86억불, +242.5%), 의약(2.79억불, +129.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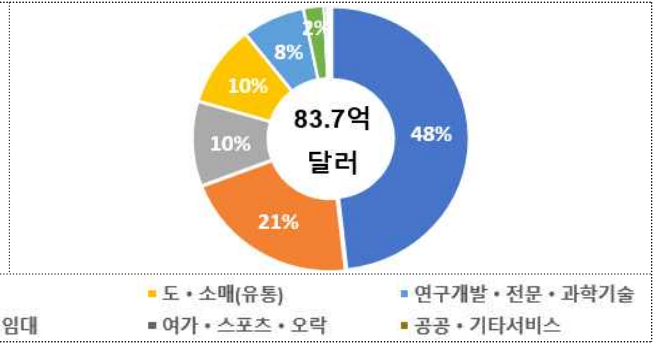
- (감소업종) 전기·전자(3.41억불, △57.1%), 기계장비·의료정밀(2.05억불, △33.4%), 운송용기계(1.00억불, △27.2%) 등

○ (서비스업) 83.7억불(전년比 +5.6%, 비중 56.3%)

< '25년 3분기(누적) 도착액 >



< '26년 3분기(누적) 도착액 >



- (증가업종) 금융·보험(40.38억불, +6.9%), 정보통신(17.55억불, +62.7%), 부동산(8.66억불, +46.6%) 등
- (감소업종) 도·소매(유통)(8.27억불, △47.4%),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6.18억불, △15.6%), 숙박·음식점(0.32억불, △23.4%)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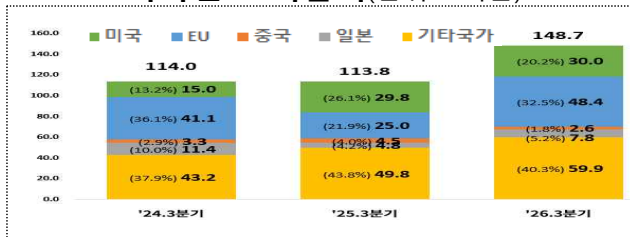
□ (건수) 제조업(242건, △1.6%)·기타업종(60건, △22.1%) 감소, 서비스업(1,751건, +4.6%) 증가

3.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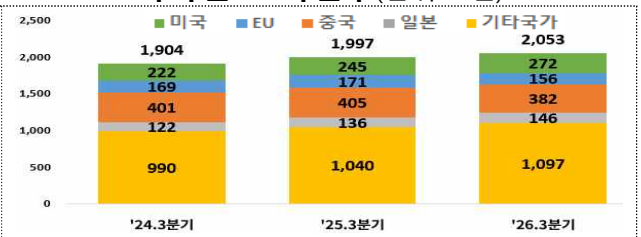
(* EU : 영국 제외 27개국)

□ (금액) 미국(30.0억불, +0.7%, 비중 20.2%)·EU(48.4억불, +93.7%, 비중 32.5%)·일본(7.8억불, +63.0%, 비중 5.2%)·기타국가(59.9억불, +20.2%, 비중 40.3%) 증가, 중국(2.6억불, △41.5%, 비중 1.8%) 감소

< 국가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국가별 도착건수(단위 : 건) >



- (미국) 30.0억불(전년比 +0.7%, 비중 20.2%)
 - (업종별) 제조업(9.6억불, △39.3%) 감소, 서비스업(20.4억불, +46.3%)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27.6억불, △1.8%) 감소, M&A(2.3억불, +44.6%) 증가
- (EU) 48.4억불(전년比 +93.7%, 비중 32.5%)
 - (업종별) 제조업(42.2억불, +494.2%) 증가, 서비스업(5.6억불, △63.6%)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14.9억불, △11.9%) 감소, M&A(33.4억불, +316.9%) 증가

- (중국) 2.6억불(전년比 △41.5%, 비중 1.8%)
 - (업종별) 제조업(2.0억불, +68.0%) 증가, 서비스업(0.6억불, △80.7%) 감소
 - (유형별) 그린필드(0.9억불, △79.7%) 감소, M&A(1.8억불, +666.7%) 증가
- (일본) 7.8억불(전년比 +63.0%, 비중 5.2%)
 - (업종별) 제조업(2.3억불, +29.0%), 서비스업(5.5억불, +82.9%) 모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4.3억불, △1.2%) 감소, M&A(3.5억불, +764.3%) 증가
- (기타국가) 59.9억불(전년比 +20.2%, 비중 40.3%)
 - (업종별) 제조업(6.5억불, +68.3%), 서비스업(51.6억불, +18.3%) 모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31.1억불, +6.6%), M&A(28.8억불, +39.6%) 모두 증가
- (건수) 미국(272건, +11.0%)·일본(146건, +7.4%)·기타국가(1,097건, +5.5%) 증가, EU(156건, △8.8%)·중국(382건, △5.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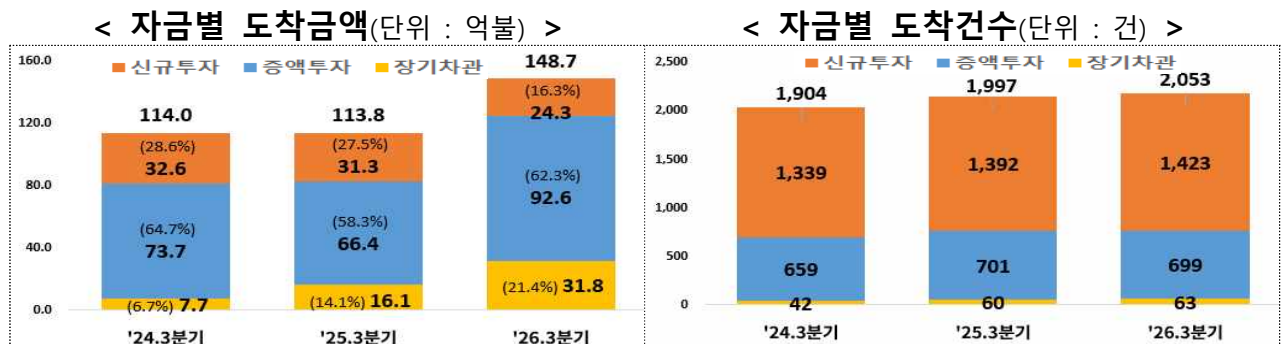
4. 자금별

□ (금액) 증액투자(92.6억불, +39.4%, 비중 62.3%)·장기차관(31.8억불, +97.5%, 비중 21.4%) 증가, 신규투자(24.3억불, △22.5%, 비중 16.3%) 감소

* 신규투자 : 외국인이 최초로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신규법인 설립 또는 유상증자 참여)하거나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

* 증액투자 :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국내기업이 ①동일 외국투자가 또는 ②새로운 외국인으로부터 추가로 투자 취득, ③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 장기차관 : 외국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신규투자) 24.3억불(전년比 △22.5%)

- 제조업(3.3억불, △6.4%), 서비스업(20.4억불, △25.3%) 모두 감소

○ (증액투자) 92.6억불(전년比 +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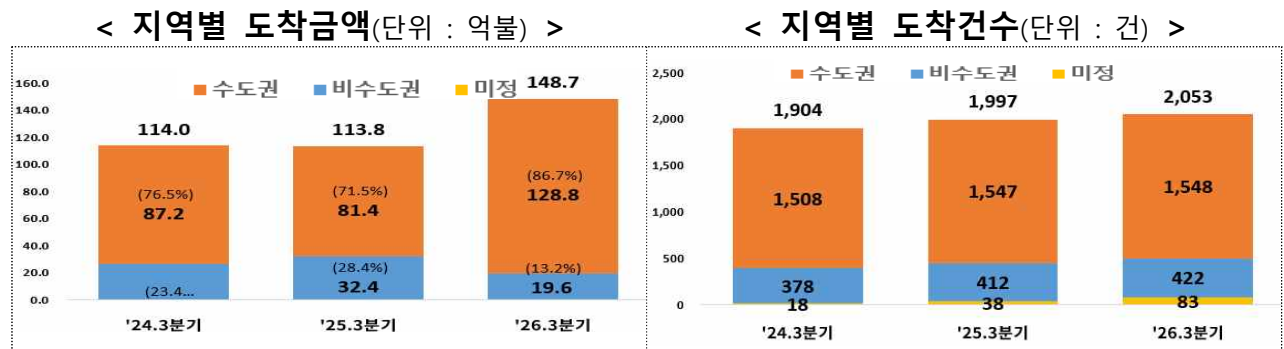
- 제조업(40.8억불, +92.3%), 서비스업(50.3억불, +20.9%) 모두 증가

□ (건수) 신규투자(1,423건, +2.2%) 증가, 증액투자(699건, △0.3%) 감소

5. 지역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非수도권 : 이외 13개 시·도 / 미정(0.2억불)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도착한 경우

□ (금액) 수도권(128.8억불, +58.2%, 비중 86.7%)·투자지역 미정(0.2억불, +438.2%, 비중 0.1%) 증가, 非수도권(19.6억불, △39.4%, 비중 13.2%) 감소



○ (수도권) 128.8억불(전년比 +58.2%)

- 제조업(50.8억불, +446.3%), 서비스업(76.5억불, +9.3%) 모두 증가

* 서울(108.1억불, +68.4%), 인천(3.4억불 △21.3%), 경기(17.3억불, +34.2%)

○ (非수도권) 19.6억불(전년比 △39.4%)

- 제조업(11.7억불, △42.4%), 서비스업(7.0억불, △24.8%) 모두 감소

* 증가 시·도 : 충남(5.82억불, +132.4%), 부산(4.02억불, +9.2%),
전북(1.74억불, +570.4%), 강원(1.10억불, +53.8%),
제주(0.15억불, +23.6%)

* 감소 시·도 : 경북(1.50억불, △44.5%), 대전(1.17억불, △22.1%),
세종(1.00억불, △21.4%), 충북(0.88억불, △82.7%),
경남(0.81억불, △17.7%), 전남광주(0.58억불, △95.1%),
대구(0.43억불, △50.5%), 울산(0.41억불, △53.7%)

□ (건수) 수도권(1,548건, +0.1%), 非수도권(422건, +2.4%) 모두 증가